

What is Your Big Plan?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스토리북



Contents

Introduction		
Story of	What is Your Big Plan? 예비 사회 혁신가를 만나다	
Asan Frontier Youth 4th	Together, Tomorrow 같은 꿈으로 함께 걸어가는 4기	
		28
	Discovery of Social Sector 사회 혁신 생태계를 만나고 배우는 시간	38
	Challenge of Social Sector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시간	
	Global Study Trip 세계 속 사회 혁신을 만나다	52
Story of Us '20'		62
		82
		102
		122
Story of Partner		144

가장 참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재가 된다.

그 참된 식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도 직접 겪어보고 가장 힘든 일도 직접 해보고, 가장 고생스러운 현장에도 나가서 경험해보고 해야만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한자리에 편안히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지식을 터득해서 폭 넓은 식견을 구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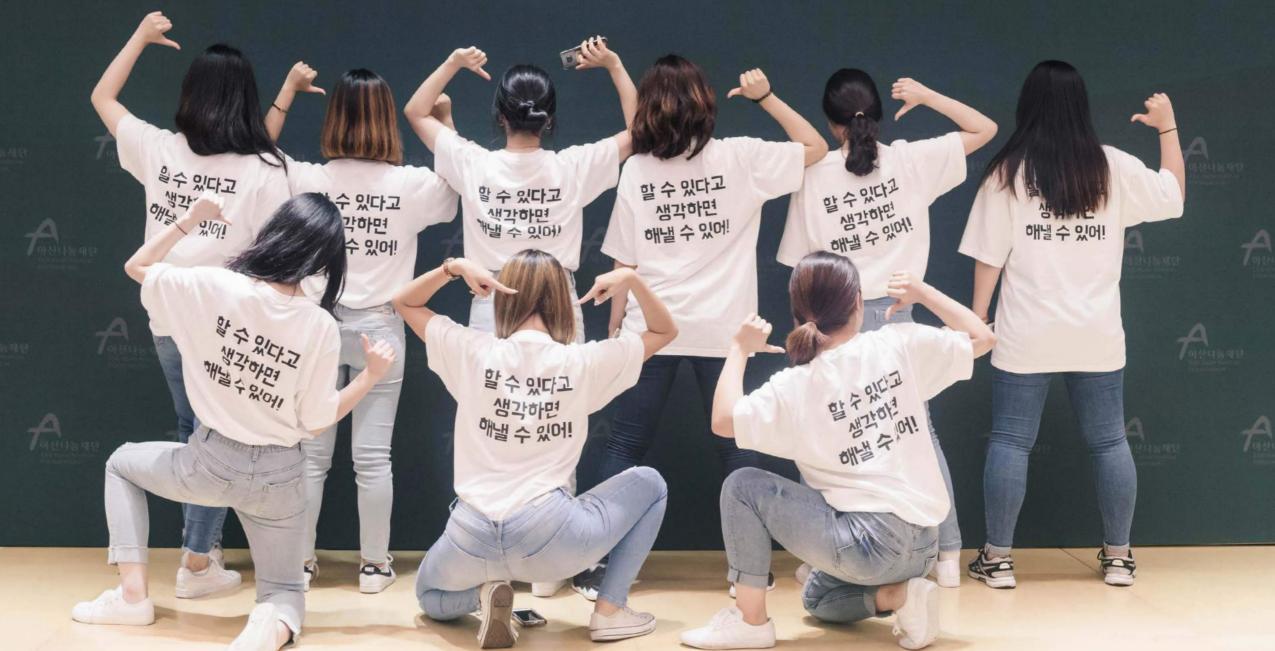
스스로 원해서 어려운 일을 맡고,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젊을 때 미리미리 쌓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Asan Frontier Youth 4th Story Book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Introduction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차세대 사회 혁신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사회 혁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여, 사회 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4개 기수, 총 103명의 청년이 본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철학 Program Philosophy





도전정신과 문제해결력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제공.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해 보면서 기업가정신 마인드와 스킬을 배우고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함.



체험을 통한 배움 Learning by doing

사회 혁신 기관과 현장을 충분히 경험하여, 이론을 넘어 현장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자 함. 빠르게 돌아가는 현장과 혁신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유도.



커뮤니티 형성

Community Building

다양한 사회 혁신 현장의 종사자들과 만나고 네트워킹하며, 사회 혁신가로서 진로 모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만나 네트워크를 쌓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핵심 커리큘럼 Core Curriculum



소셜 섹터 인턴십 Social Sector Internship

사회 혁신 기관에서 5개월 동안 현장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모금, 국제협력,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유급으로 근무하며, 전문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업무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항상하고,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월 전문가와 진행하는 1:1 멘토링을 통해, 본인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임팩트 교육 Impact Education

사회 혁신 트렌드와 원리를 이해하고, 도전과 실패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특강, 현장 방문,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사람, 조직을 만나며 소셜 섹터를 깊게 학습합니다. 동료와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소셜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며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터디 Global Study

새롭고 혁신적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외 기관 탐방 팀프로젝트입니다. 팀은 논의를 통해 방문하고 싶은 기관을 컨택하여 해외 탐방을 기획합니다. 해외 현장에서는 담당자 인터뷰,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는 소셜 섹터에 대한 관점을 넓혀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한눈에 살펴보기

ASAN FRONTIER YOUTH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지원자 수

4기 단원 20명 여 15명, 남 5명 평균 나이 24.2세 (만)

337

프로그램 운영기간 약 11개월

2018.3.23(월)~

구분	일자		
인턴십 기관 모집	3.23~4.6		
단원 모집	5.2~5.22		
단원 선발	5.15~5.24		
입단식	7.13		
소셜 섹터 인턴십	7.16~12.14		
임팩트 교육	준비교육: 7.2~7.13(총 10일)		
	탐험교육 : 8월~12월 중(총 10일)		
	도전교육 : 19년 1월~2월 중 상시		
글로벌 스터디	19년 1월 중 (9박 10일)		
수료식	19.2.22		







썙아동복지실천회 **세울**



 ★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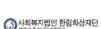




KOREA VOLUNTEER CENTER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기관명	인턴십 부서명	주소	기관명	인턴십 부서명	주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목적사업과	경기도 부천시	아름다운커피	공감마케팅팀	서울시 은평구
더라이트핸즈	사업부	서울시 금천구	와우책문화예술센터	기획홍보팀	서울시 마포구
동안제일복지센터	후원홍보팀	서울시 송파구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시 중구
라파엘인터내셔널	해외사업팀	서울시 성북구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생명의숲국민운동	더불어숲팀	서울시 마포구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서울시 중구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소통협력팀	서울시 중구		(청소년팀)	
세상을품은아이들	경영지원실	경기도 부천시	한국자원봉사문화	정책홍보국	서울시 서초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서울시 종로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운영팀	서울시 마포구			101145=7
아름다운가게	교육문화팀	서울시 중구	한림화상재단	모금사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THE TENT	정책실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팀	서울시 중구	
	o ¬ 곧 전략기획파트		함께일하는재단	일자리증진팀	서울시 마포구

2,496 AZ

인턴십 근무 기간 5개월

공휴일 제외 기준

기업가 정신 및 사회 혁신 역랑 강화 교육 총 시간

•	유스다움 42시간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눌 수 있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으로서 기업가정신 마인드셋을 함양하는 과정
•	커뮤니케이션 20시간	인턴십, 협업, 발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하는 과정
•	소셜 섹터 맵핑 59시간	사회 혁신 특강, 현장 방문,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사회 혁신 사례, 트렌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과정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75시간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5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팀 프로젝트

255 g

활동 기간 동안 교류한 소셜 섹터 종사자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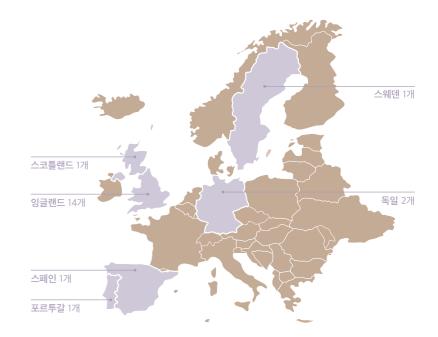
특강, 현장 방문, 인터뷰, 동문, 인턴십 기관 팀원 등

팀 프로젝트 진행 개수 사회 이슈 케이스 스터디 4개 +

북 스터디 4개 + 문제해결 팀 프로젝트 4개

000

해외 탐방 국가 및 기관 수





The Story of Asan Frontier Youth 4th

What is Your Big Plan? 예비 사회 혁신가를 만나다	20
Together, Tomorrow 같은 꿈으로 함께 걸어가는 4기	22
In the Field 현장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	28
Discovery of Social Sector 사회 혁신 생태계를 만나고 배우는 시간	38
Challenge of Social Sector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시간	44
Global Study Trip 세계 속 사회 혁신을 만나다	52.



What is Your Big Plan?

예비 사회 혁신가를 만나다

2018년 5월,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단원 모집이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의 Big Plan은 무엇인가요?(What is Your Big Pla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사회 혁신가의 꿈을 품은 청년 152명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총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20명의 청년이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단원의 스토리를 시작하였습니다. 49₉

단원 모집과 선발 기간

모집 기간 2018.5.1~5.22 선발 기간 5.23~6.18



152 g

총 지원자 수 평균 경쟁률 7.6:1



3 단계 선발

1 서류 심사

활동 사항, 에세이 평가

7 면접 심사

토론 심사, 인적성 면접

3 기관 심사

자기소개 영상, 지원서 평가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 · 단원 주요 선발 기준 Attitude,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Fit
- · 심사위원

김용한 더나은세상 실장 | 고현진 네이버해피빈 팀장 | 박정호 MYSC 이사 | 윤상석 공존플랜 대표 차선주 티앤씨재단 사무국장 | 박지훈 아산나눔재단 팀장 | 김아랑 아산나눔재단 팀장

단원 소감 인터뷰



남소연 쏘니



홍지연 홍

비영리 관련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AFY는 저에게 정말 간절했어요. 설명회, 면접 모두 긴장 반 설렘 반 상태로 임했었는데, 모두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비영리 분야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존중 받는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60

AFY는 대학 졸업을 앞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였어요. 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고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고 풀어갈 수 있을지에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면접날, 입단하던 날, 무엇보다도 혼자 하던 고민을 함께해갈 친구를 만난 날, 그 모두를 잊을 수 없어요.

,,,



Together, Tomorrow

같은 꿈으로 함께 걸어가는 4기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단원 20명은 '더 나은 세상과 내일을 꿈꾸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어색함도 잠시. 서로의 가치, 꿈, 관심사, 목표 등을 함께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가 되어 갑니다. 때로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가까운 친구처럼 농담을 나누며, 때로는 고민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서로의 멘토로 이렇듯 4기 20명은 함께 미래를 걸어갈 신뢰하는 동료입니다. **20**명 4기 단원 여자 15명 남자 5명 평균 나이

의선 선택 [] 프로필 설명 []

설정

너 당바락 친구 관리



키워드로 알아보는 20명

24.2세(만)



나의 Big Plan?			
체인지메이커	사회혁신가	컨트리뷰터	성장하는사람
좋은사람	한명을위한사람	즐겁게살기	사회적기업가
쓸모있는일꾼	행복한사람	빛나는사람	인권외교관
희망을주는사람	재단이사장, CEO	예술경영인	국제개발협력가
비영리단체대표	답을찾는사람	국제구호단장	자유로운활동가



단원 소감 인터뷰



정은진 지니



송다운 다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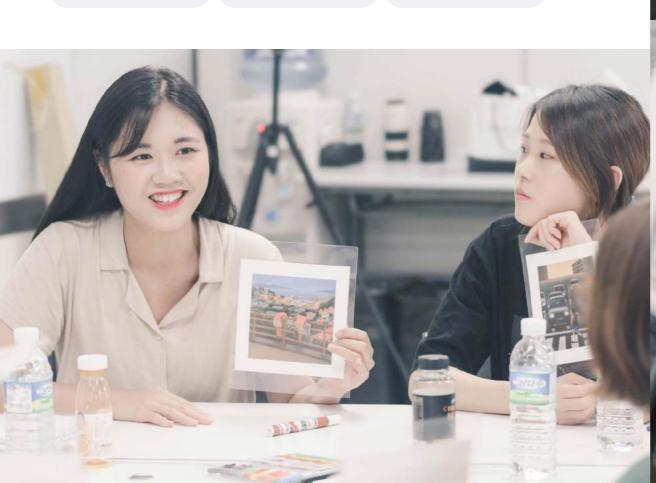
유수정 크리스탈

일할 때는 단단하고 가치 있게, 놀 때는 미친 듯이 광(光)나게 지냈던 20명의 귀중한 보석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았던, 험난한 과정 속에서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석 같은 4기 덕분! 모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주변에 소셜 섹터, 사회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친구가 없었는데 AFY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팀 빌딩이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 더 생각해보고 싶은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어요.

AFY 이전에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는데, 문제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동참할 파트너를 찾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걸어갈 파트너를 얻은 것 같아 소중한 20명의 인연을 잊지

토의하고 기관을 탐방하며 함께 행복합니다. 아프유를 통해 만난 않을 거예요.









In the Field

현장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단원들은 교육, 문화 예술, 국제 협력, 마이크로크레딧 등 각자의 전공과 지식을 살려 기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5년 이상 종사한 실무자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인턴십 생활, 진로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인책만하예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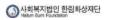




아름다운커피







인천문화재단 <u>F√C</u>





기관명	인턴십 부서명	주소	기관명	인턴십 부서명	주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목적사업과	경기도 부천시	아름다운커피	공감마케팅팀	서울시 은평구
더라이트핸즈	사업부	서울시 금천구	와우책문화예술센터	기획홍보팀	서울시 마포구
동안제일복지센터	후원홍보팀	서울시 송파구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시 중구
라파엘인터내셔널	해외사업팀	서울시 성북구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생명의숲국민운동	더불어숲팀	서울시 마포구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서울시 중구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소통협력팀	서울시 중구		(청소년팀) 	
세상을품은아이들	경영지원실	 경기도 부천시	한국자원봉사문화	정책홍보국	서울시 서초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서울시 마포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서울시 종로구
이중국시결신의 제품	T 0 E	시물시 미모구	한림화상재단	모금사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아름다운가게	교육문화팀	서울시 중구			
	 정책실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팀	서울시 중구
	전략기획파트		함께일하는재단	일자리증진팀	서울시 마포구





2,496 NZ

인턴십 근무 기간 5개월 공휴일 제외 기준

122.25 AZZ

1:1 멘토링 총 시간 총 63회 진행 전문가 멘토 수 49명











단원 소감 인터뷰



김종원 원



김지원 주디

6

생명의숲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비영리 분야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기회였어요. 숲 조성, 활용 사업을 하는 팀에 소속되어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조성될 숲의 의미와 구성에 대한 설계, 활용을 고민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과 숲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66

인천문화재단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문화예술행정을 폭 넓게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건 2018년도 책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근대문학관에서 다양한 문화사업과 전시기획에 참여했을 때에요. 인턴으로서의 모든 경험은 문화예술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9



최윤석 윤스톤



조정은 우디

60

아름다운커피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실무 업무에 대해 A부터 Z까지 배울 기회였어요. 마케팅팀에 소속되어 공정무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직접 인도네시아 생산지에 출장을 가보는 등의 활동을 했죠. 인턴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을 보고 배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인턴십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작고 쉬운 일부터 크고 어려운 일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빅 플랜(big plan)과 그 안의 디테일(detail) 사이를 오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자신감과 유연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 직원분들과 일하며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Discovery of Social Sector

사회 혁신을 이해하는 시간

국내 사회 혁신 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단원들은 사회적 경제, CSR, 스타트업 등 국내 다양한 사회 공헌과 사회 혁신 사례를 살펴보며, 사회 혁신가의 역량을 기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 사회 혁신의 트렌드, 일하는 방식 등을 알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진로 탐색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35

특강 및 인터뷰 대상자 수 김영광 이사 어썸스쿨 김광현 과장 파타고니아 임소희 심사역 옐로우독 *and othe* 허재형 사무국장 루트임팩트 도현명 대표 임팩트스퀘어 5

케이스 스터디 코치 이효정 뿅 안정권 모티 박정호 호이 한성휘 휘 한정민 하니

0 \$

사회 이슈 분석 케이스 스터디 수

5인1조로 팀을 만들어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케이스 스터디 써니

- ◎ 영상 콘텐츠에서 나타난 왜곡된 성인식
- ❷ 청년 주거빈곤 문제

유스가 사는 세상

- ◎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❷ 가해자 가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우주하마

- 미세 플라스틱 문제
- ❷ 전력난과 신재생 에너지

굿레이버스

- 시니어 일자리 문제
- ②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

13_z

방문 기관 및 행사 아산나눔재단, Maru180, 구글캠퍼스, 페이스북 남산랩, 헤이그라운드, 카우앤독, SEAM센터, 온더레코드, 아모레퍼시픽, 언더독스, 제2하나원,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 N포럼





사회 혁신 도서 리스트

- <사회 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제프멀건 2011
- <기업은 저절로 착해지지 않는다> 이보인 2012
- <선을 위한 힘> 레슬리 크러치필드, 헤더머클로우드 그랜트 2010
-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박명준, 이준구, 김태균, 윤효원, 장대업, 배규식, 채준호 2017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고동현, 이재열, 문명선, 한솔, 사회적기업연구소 2016





단원 소감 인터뷰



권혜연 버찌



최효은 피글렛

평소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환경' 이슈를 다룬 저희 '우주하마'팀은 환경보호에 관련한 공모전에도 함께 참여하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일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슈들을 일상으로 가져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5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경험이 어려웠지만 즐겁고 새로웠어요. 특히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단순히 문제를 아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까지 발전한 것 같아 좋았어요. 사회 이슈를 자세히 분석하고 북터디와 논문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복합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김수빈 엘사



이다정 제이

'Be 아프유!' 소셜 섹터 맵핑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들었던 응원이었어요. 퇴근 후 저녁 늦게 만나서 회의하고, 그렇게 24시 카페에서 밤을 새우고 다시 출근하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주문처럼 외우던 응원이었어요. 특수학교, 그리고 가해자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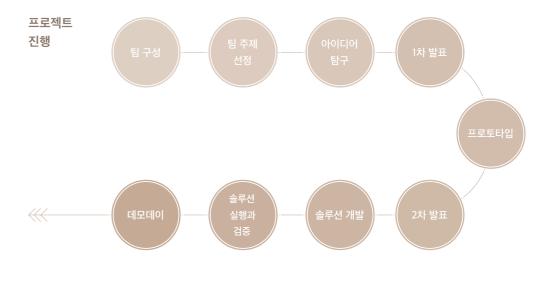
전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사회 문제를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성평등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이해와 관점을 맞춰가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사회 혁신 사례를 조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고정된 관점을 바꿔서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시간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해보자! 이전 과정들을 통해 사회 혁신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마친 단원들은 5인 1조로 팀을 만들어, 직접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다'는 자세로 탐구하고 토론하여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4기는 총 4개 팀이 약 5개월 동안 저마다의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철학

팀 프러너십

모든 과정에서 동료와 함께 논의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며 성장하는 배움을 추구

캡스톤 방식

대화, 토론, 회고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성찰과 학습을 유도

다이씽킹

공감, 정의, 상상, 프로토타입, 테스트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접목





공공 00

송다운, 이하현, 조정은, 최윤석, 홍지연

청소년에게 '스라벨'을 -청소년의 여가부족 문제해결과 일상 속 '스터디&라이프 밸런스'를 위한 아카이브 전시 프로젝트

휠리 Wheellie

김종원, 고현영, 남소연, 이동진, 박수민

20대 휠체어 이용자의 필요에 맞춘 맛집 접근성 정보 공유 프로젝트



안다 Anda

권혜연, 김수빈, 정은진, 유수정, 홍하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권력 및 연령 계급에서 오는 불평등함이라는 인식 확산 프로젝트

콜라포레이션 Collaporation

김성규, 김지원, 이다정, 조상원, 최효은

대학생 금융인성교육 프로젝트 -대학생을 대상으로 돈에 대한 가치관과 재무지식을 다루는 금융교육 프로젝트



휠체어 신화

식당정보찾기

Odistry केल •

N 게 게 게 게 된 다

प्रमुद्द शुक्ता

TON

선수가

AT The Part

FEF017105

식당정보에 대한

20대 인스타유저

휠체어 이용자

아드보카도

파트너

20대 휠체어이왕인

हामन के वे वेरेन अपने की वेरे घटना में घटन के जहांमा हैगोई वेरिया हेन्स

2422 HE 454

मुक्तर पर म प्रकार ग्रेस्वन्त्रेन वना डिग्रेस्टिक

탐방

316 CD & ZONO

अक्षत्रन सहस्र अक्षत्रन सहस्र चरमः

The Balann

필요받아!

dadar aga e dadar aga e den agalen

াছ্ন কর্ম শুখ পুমুলা ল

贴 初始 768战年2814

미성년자와의

불평등한 성관계는

성착취입니다

저희 이것으는 대생전자 전에에서 박대합니다.

아눌자앱으로 QR코드를 찍어 캠페일을 용송하고

무료숙박 포인트 발아가 내고 0

মান্তান্ত্র কার্যন্ত্র শহাস্ট্র

욕구가 있는

단원 소감 인터뷰



이동진 동동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인사말과도 같이 쓰일만큼 밥 먹는게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왜 휠체어 이용자를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식당 앞의 작은 턱이나 계단들이 휠체어 이용자분들에게는 높은 벽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접근성' 이슈를 더 깊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휠체어 이용자들과 나눈 여러 이야기 속에서, 늙거나 사고로 휠체어에 앉게 되는 일이 나와 무관할 이유가 없음을 느꼈거든요. 결국 이해와 공감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다양한 각도로 더 깊이있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회연대은행에서 인턴하기 전에는 금융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인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돈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고 청년들 또한 빚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금융 문제를 더욱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청년이 자신의 꿈을 좇는데 돈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게 된 계기였어요!





Global Study Trip

세계 속 사회 혁신을 만나다

5인 1조로 구성된 팀은 방문하고 싶은 기관을 선정하고, 연락하여 해외 탐방 일정을 계획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팀이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합니다. 단원들은 해외 탐방에서 다양한 국가의 담당자와 소통하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관점에서의 사회 혁신 생태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9₄10₉

팀별 탐방 기간 현지 체류일 기준 19,837_{km}

팀별 평균 이동 거리 1,500 _{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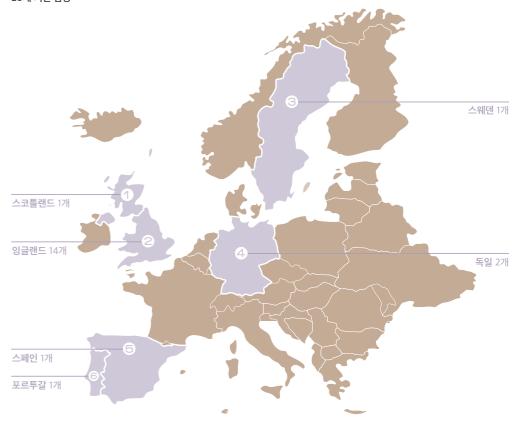
팀별 5인 1팀 해외 탐방 지원 비용





방문 기관

총 6개 국가 20개 기관 탐방



① 스코틀랜드	Social Bite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❷ 잉글랜드	Quaker Social Action 영국 런던 TSIP 영국 런던 Young Money 영국 런던 The Money Charity 영국 런던 SIX 영국 런던 UNGC UK 영국 런던 Social Life 영국 런던	Equality Now 영국 런던 The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영국 런던 CRIN 영국 런던 Lucy Faithfull 영국 런던 Transport for All 영국 런던 AbilityNet 영국 런던 Bikeworks 영국 런던
ⓒ 스웨덴	Per-Anders Sunesson 스웨덴 스톡홀름	
4 독일	Waldorfschule 독일 함부르크	Change In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⑤ 스페인	Mondragon Team Academy 스페인 빌	바오
6 포르투감	DigitalWorks 포르투갈 리스본	

단원 소감 인터뷰



고현영 제쓰

60

글로벌 스터디를 통해 만난 해외 기관들의 업무 수행 방식, 평등한 문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저희를 학생이 아니라 친구 혹은 동업자로 생각해 존중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특히 방문한 국가들은 사회 혁신 분야에 대한 인식과 제도부터 남달랐어요. 덕분에 우리 팀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한편으론 한국에서도 그러한 인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55



홍하늘 스카이

161

'세상은 넓고 도움의 손길은 많구나'를 느꼈죠. 영국과 스웨덴이라는 나라들이 멀게만 느껴져서 방문 요청이 거절당할까 봐 막막했지만, 저희를 호의적으로 맞아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도움이 필요할 땐 일단 손을 뻗어봐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어요. 저희가 방문한 기관들처럼 세상 어디에서나 저희의 손을 잡아줄 분들은 많으니까요.

55



김성규 빵규

-66

다양한 기관의 직원분들이 모두 각자가 맡은 업무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덕분에 기관의 사회적 임팩트가 온몸으로 와 닿는 느낌이 들어 전율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글로벌 스터디를 통해 무슨 일이든 뚜렷한 가치,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



이하현 라온

6

글로벌 스터디는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치열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움이 느껴졌던 기관 분위기와 기관 담당자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변화를 꿈꾸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일이 나의 고민과 문제의식과 이어질 때, 힘들어도 박차고 가슴 뛰는 과정이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현영. 권혜연. 김성규. 김수빈. 김종원 김지원. 남소연. 박수민. 송다운. 유수정 이다정. 이동진. 이하현. 정은진. 조상원 조정은. 최윤석. 최효은. 홍지연. 홍하늘

뜻밖의 여정

고현영 제쓰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처음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에 지원하던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언어적 불리함, 아직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차이, 벌써 늦어진 대학 졸업이 1년 더 늦춰진다는 현실적 문제 등,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힘은 일단 해보자 하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려워하고 있던 문제들인 만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한국어와 한국에 더욱 익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내 집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한국이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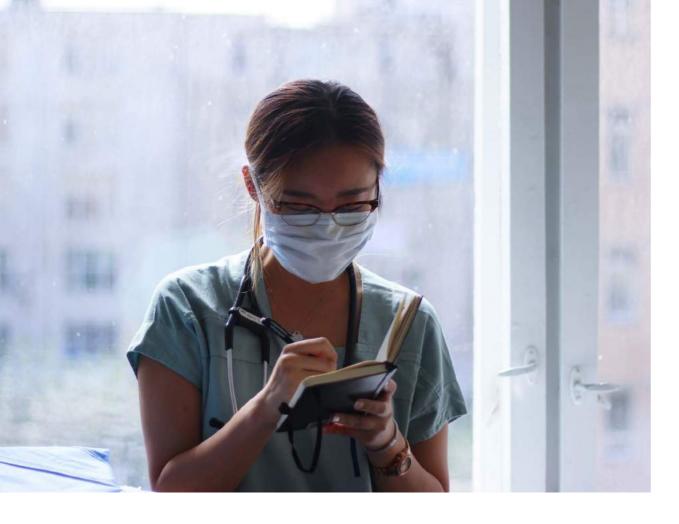
그동안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교환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정해진 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새로운 교환학생 친구를 사귀는, 이런 인간 관계의 반복이었습니다. 자연히 한국에 대한 저의 시야 또한 한정된 범위 안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동기들은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교류를 나눌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인상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에 익숙해지는 것 또한 저에게는 또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익숙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작업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를 극복해가고 하나로 묶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나 자신을 엑셀러레이팅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인턴 과정은 이렇게 배운 저의 재능을 실무 현장에서 발휘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뚜렷하게하고 싶었던 저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라파엘인터내셔널에서 멘토님을 만난 것은 정말 큰행운이었습니다. 멘토님은 인턴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관에서 제가 맡아야 할 역할 얘기해주는 것 대신 저의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고,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파엘인터내셔널에서 출장과 현장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제 꿈을 결정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일하는 법,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실무에 임하는 자세 등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나'를 확인하고 끝나는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사귄 친구들까지, 지원했을 때했던 고민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뜻밖의 여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If you Believe it, You can achieve it!

인턴십 기관 및 부서 라파엘인터내셔널 해외사업팀





나의 빅플랜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현재의 삶을 위해, 나의 행동과 선택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Youth, Embracing a better world

권혜연 버찌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 아태물류학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 하겠어

보통 이러한 대외활동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아, 이렇게 수기를 쓰면 되겠다'하는 감이 오기 마련인데 아산 프론티어 유스(아프유)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끝까지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매순간 최고 알참도를 갱신하며 살아온 7개월을 지난 지금, 저는 처음과 같은 사람일 수 없다고 느낍니다.

어느새 멋진 사람들과 바쁜 날들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이거 해 볼 사람?' 했을 때 그 누구를 짚어도 마치 준비한 것처럼 술술 해내고, 쉬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원들과 함께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졌던 교육 기간, 소셜섹터에 대해 공부하라고 했더니 공모전에 함께 참가해 액션을 이뤄 내버린 행동파 우주하마 팀원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여기 다 모여계시지?' 싶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인턴십 기관 세상을품은아이들의 열여섯 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세상을 품고 있던 아이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준 위기청소년 이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뒹굴어 질 정도로 부딪히고, 도전하고, 성취해낸 안다 팀원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난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모든 소셜섹터 활동가분들이 빛났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제게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쩍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빛나겠습니다. :D !!)

모호함, 그리고 무모함

아프유 모집 공고에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것 자체가 저에게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아프유의 모든 과정은 모호함 그 자체였고, 마무리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단지 조금 더 불확실함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호함에 대한 답이었던 '무모함'은 무모했던 과정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비로소 '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호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변명'이 아닌 '방법'이 된 것을 보면, 무모했기에 성취했던 경험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모호할 날들에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무모했던 우리에게 박수를, 짝짝짝.

나는 [당신과 상관없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믿어라." 아프유 과정을 지나면서 만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상관없는 일은 그 무엇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한 7개월도 분명 세상을 변화시킬 어떠한 임팩트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활동이 끝난 이후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겠지만, 어딘가에는 같은 마음으로 같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세상을 품은 버찌 올림.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세상을품은아이들 경영지원실



나의 빅플랜은
어디에 있어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혁신'이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곳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회혁신가가 되고 싶습니다.



Ready, Steady, Go!

김성규 빵규 | 워릭대학교 사회학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에 지원할 당시 저는 출발선 위에 서 있는 마라토너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마라톤 선수와는 다르게 저는 인생이란 긴 마라톤 코스에서 확실한 전략과 목표 없이 막연히 출발선 위에 '그냥' 서 있는 자신 없는 마라토너였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막연한 환상과 꿈을 갖고 사회에 뛰어들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민이란 탈을 쓰고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공고는 한 줄기의 희망과 같았습니다. 현장경험, 멘토링, 교육 그리고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등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구성된 프로그램을 보고,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는 제 가슴을 한 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Ready

5월의 한 목요일 오후, 세찬 빗줄기를 뚫고 어렵게 도착한 사업 설명회는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석자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설명회에서 3기 선배님들이 여유롭게 전해주는 "정말 힘드니 고민을 깊게 해보고 지원하세요", "아픈 성장통을 겪고 싶은 분들만 지원하세요" 등의 솔직한 후기는 호기심과 오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2개월간의 발탁 과정과 교육 과정을 통해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이 되었습니다.

St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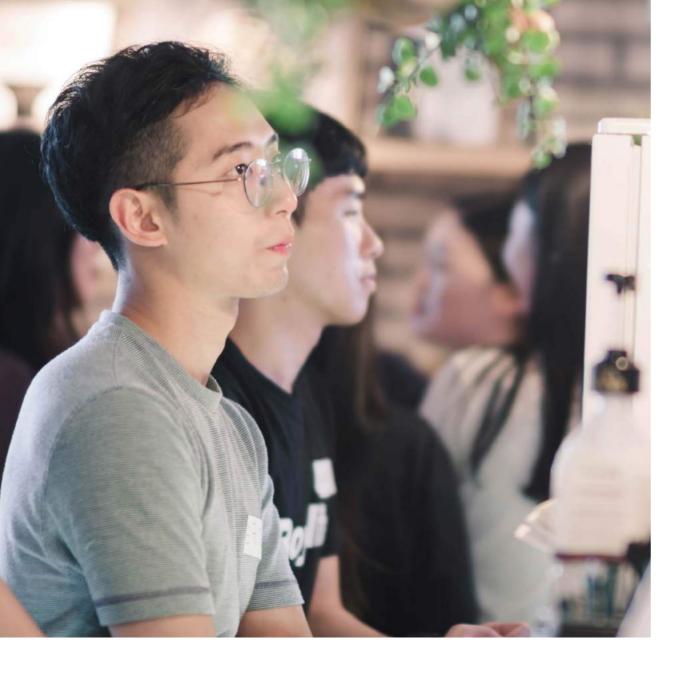
7월 중순부터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시작된 5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통해 '진짜' 비영리의 현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의 기초에서부터 비영리기관만의 고충, 그리고 현직자 개개인분들의 가치관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팀원들과 함께 나 자신의 가치를 고민해보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이후에 단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는 '협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다수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의 양,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임팩트의 크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의사소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는 솔직함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따뜻하지만 때론 냉철하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내면과 생각을 고안할 수 있었습니다.

Go

2월 22일 이후로 저는 '빵규'로서의 삶을 끝내고 '김성규'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한번 출발선 위에 올라가 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갖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저는 1등을 하기 위해 무작정 달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완주하는 마라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색다른 마라톤 경기 개설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으로서 진정한 협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수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함께일하는재단 일자리증진팀





나의 빅플랜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타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가치를 모아
함께 사회의 어려움을 바라본다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72

My future is unlimited

김수빈 엘사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제목은 뮤지컬 위키드의 가장 대표적인 넘버, 'Defying Gravity'의 가사입니다. 영국으로 글로벌 스터디를 갔을 때, 웨스트 엔드에서 뮤지컬 위키드를 봤고, 그때 들었던 이 넘버의 가사들은 마치 '아산 프론티어 유스(아프유)'를 통해 성장한 지금의 저를 나타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지난 7개월을 돌아봤을 때, 아프유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Unlimited', 이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했던 '아프유'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때로는 눈물 나게 힘들기도 했고, 눈물 나게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생에 첫 인턴십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제가 처음으로 인턴십을 수행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수감자 자녀들의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이 기관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었습니다. 생에 첫 인턴십이라는 부담감과 긴장감에 그 전날부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고양이 세미와 우미를 비롯해서, 세움의 대표님, 박사님, 두 분의팀장님과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에 첫 인턴으로서 일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세움의 한 식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마다 함께 가졌던 티타임, 대표님의 진로상담 등 세움에서 근무하며 만나 뵈었던 모든 세움 가족들을 통해 나눔과 따뜻함의 실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걱정해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처럼 위로해주시는 모습들이 첫 사회생활이라는 부담감을 모두 잊게 해 주셨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해피빈 모금함 초기 100% 달성, 생애 첫 교도소라운딩, 온라인인식개선 캠페인 등 크고 작은 업무들을 직접 경험하며 제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스가 사는 세상을 안아 줄게!

지난 7개월을 되돌아봤을 때, 저 스스로 가장 한계점에 부딪혔던 순간들은 바로 소셜 섹터 맵핑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인턴십과 병행해서 진행되었던 소셜 섹터 맵핑은 함께 24시 카페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피로회복제에 의지하여 출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꾸벅꾸벅 조는 팀원을 바라보며 웃긴 사진도 찍고, 퇴근 후 모여 함께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사회 문제의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던 그 시간들은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함께해줬던 '유스가 사는 세상',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에서는 워크샵에서부터 글로벌 스터디까지, 가족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토론하며 우리가 선정한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자 쉴 틈 없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한국을 넘어 영국, 스웨덴, 러시아에까지 함께 발자취를 남기고 온, 웃음이 끊기질 않았던 우리 '안다', 너무 수고했고 함께 해준 덕분에 나도 할 수 있었어, 고마워!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주셨던 윤상석 소장님과 휘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20명의 단원들입니다. 첫 만남 때의 어색함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함께 물들어갔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지각을 피해 함께 뛰었던약수역의 계단도, 함께 먹었던수많은 닭갈비와의 순간도, 함께 보았던 춘천의 가을도, 그리고 첫눈까지도, 우리가 함께했던시간들은 모두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소중한시간들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한 아프유에서 빠질 수 없는 든든한 '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운영팀







나의 빅플랜은

누군가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들 모두가 소외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꿈을 꿀 수 있는 당연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몰랐던 것에 대한 도전

김종원 원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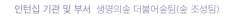
['소셜섹터'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며]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소셜섹터는 정말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책이나 뉴스, 잡지에서 그 사람들을 보며 '대단하다, 멋있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평범한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아산 프론티어 유스(아프유) 4기 모집 설명회에서 사회혁신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들었을 때, 무언가 마음속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직도 설명회 당시의 기대감과 흥분 등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에서 멋있다고만 느꼈던 감정이,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는 의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집 설명회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서류와 면접 준비를 하여 합격, 본격적인 예비 사회혁신가로서의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아프유 과정에서 저와 아프유 단원들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임팩트 교육을 통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비영리분야 인턴십을 통해 평소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던 분야의 실무를 직접 경험해보았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활동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정말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문제라고 생각하던 일이, 어쩌면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한번 떠오르니, 활동에 더욱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화를 꿈꾸는 것과 실제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셜섹터에 대한 교육을 들으며 느낀 것은,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람들의 시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뀌지 않는 사회 문제 또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혁신을 위해 나아가다 현실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니, 내가 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사회혁신가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치열한 노력으로 방법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진정한 사회혁신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가르침을 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제 삶을 변화시킨 혁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아프유와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준 동기들을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의 빅플랜은
사회혁신가로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습니다.





터닝포인트 2.5

20대 중반의 패러다임 시프트

김지원 주디 | 홍익대학교 예술학

2019년 2월 22일.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로서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먼저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서로 다른 반짝임을 지닌 20명의 4기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힘들었던 시기, 그대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무사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는 각자의 별명을 정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별명으로 부릅니다. 제 별명은 주디로 정했습니다. 주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속 주인공으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주디처럼 8개월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주디라는 별명을 정한 이유는 주디가 보여준 용기와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영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없이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했습니다. 복지, 국제협력 등 보편적인 비영리 분야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황 속 오롯이 스스로의 'Big Plan'만 붙잡고 본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학기, 이상한 아쉬움이 따라다녔습니다. 유학이 확정되고 분명 편안한 마음으로 아니 기쁘게 앞으로의 커리어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생의 시작과 끝이 예술일 것이라는 확신과 스스로의 삶을 '예술과의 동행'이라 표현할 만큼 명확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이란 다음 단계가 확정되자 조심스레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전시기획자란 꿈에서, 과연 '선함'은 무엇이며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달림을 잠시 멈추고, 잠시동안 달려온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문화예술계의 혁신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와 그 방법은 기업가정신일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갖고 아산 프론티어 유스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비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에 잠식될 때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교육과 사람으로부터 해답과 위로 모두를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민은 해결됐니'라고 물으신다면,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다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거치며 확답할 수 있는 것은 빅 플랜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결심입니다.

마지막으로 25살 주디, 그리고 26살 지원의 빅 플랜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계의 백종원이 될 것입니다. 예술의 소비가 일부 고상한 아비투스에 국한되지 않고, 만인에게 예술이 소비되는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는 예술 기업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예술 활동과 문화 나눔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가능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불확실함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아산나눔재단 아산홀

나의 빅플랜은
미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
경제적 조건과 교육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술을 즐기고 소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남소연 쏘니 | 숭실대학교 경영학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각자의 삶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혁신을 위해 인턴십의 자리에서 활동할 때, 소셜 섹터 맵핑,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를 돌아보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가 성공적이여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친구들과 인턴십을 함께했던 선생님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저도 제가 맡은 프로젝트와 인턴십에서의 사업들을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결과들을 맞이해서 뿌듯했던 것과 동시에 제 친구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가치로 돌아가는 시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제 삶의 비전이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시간을 통해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에 쌓여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턴십 과정에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진짜 어려움과 그 원인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의 인턴십 과정을 지나면서 식수, 의료, 교육 등 여러 사업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자세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직접 몸으로 그 문제에 뛰어들고, 직접 프로젝트 대상자를 만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나' 중심의 도움, 나눔에서 '당신'을 위한 도움,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모든 과정은 제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공감'과 '다른 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귀하여 그 마음에 머물며 진심 어린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도전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매개체가 된 것이 정말 기쁘고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시간들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함께해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션, 석, 미르, 20명의 친구들과 더라이트핸즈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더라이트핸즈 사업부





나의 빅플랜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발자취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8



비행 중 불시착

박수민 쑤 |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

8개월 전의 저는 마치 아무런 목적 없이 허공을 떠도는 비행기와도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보여주기 식의 노력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흘려 보낸 시간이 제가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서, 그 즈음부터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저는 어딘가 잘못되었다고만 느낄 뿐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아프유)에 지원한 것 역시, 원대한 포부나 목표를 가졌다기보단 그저 2018년의 계획 중 하나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런 지식도, 정보도, 네트워크도 없는 나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이라며, 두근대며 계획을 세웠던 연초의 제가 무안하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모든 활동을 통해 저는 다시 타인과 마음을 나누고, 나를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는 것]

아프유에 입단하여, 저는 제가 겪어본 중에 가장 복작거리고 낯선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사회변화를 꿈꾼다는 공통점 아래 각양각색의 개성과 소망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고, 강의와 팀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가와 사회적 기업가를 포함한 여러 인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양하고도 넓은 관계 속에서, 저는 저와 다른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의견에 비춰 제 생각을 재정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노력을 아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에 늘 두려움이 컸던 저에게 이 경험은 매우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대한 기대감]

제가 걸어온 길을 한창 미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전공과 지난 경력이 지금의 내게 아무 소용없는 것들처럼 느껴졌고 자꾸 뒤처진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확신 없는 위안의 효과가 점차 사라져갈 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비영리, 영리 상관없어.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중요시하는 조직에 가면 돼." 빙빙 돌아도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선생님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도, 바다에서 항해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 다양함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모두 자신의 과거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어 활동가 모임에 참석하고, 사소한 상황에서도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은 매우 밝게 빛났고, 동시에 제가 예전에 얼마나 즐겁게 일했는지 아주 강하게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당차고 호기심 넘치고 의욕이 충만한,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나. 잠시 잊었던 내 모습을 똑바로 마주하니 자연스럽게 비영리에 대한 초심이 돌아왔고, 도약하는 것만 남은 앞으로의 길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저 그런 비행인 줄 알았는데]

지난 7개월, 저는 어느새 아프유에 불시착하여 저의 곳곳을 돌아보고 격려를 받으며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 없는 비행이라고 생각했던 방황의 시간이, 사실은 그저 특정한 목적지가 없었을 뿐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제 몫을 다 해내지 못했을 저를 가만히 참아준 써니와 아드보카도 친구들, 그리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선생님들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려갈 모두의 발자국을 응원하며, 저는 아프유의 기억을 원동력 삼아 다시 치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팀





박플랜이 없는 게 박플랜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

송다운 다우니 | 한양대학교 정보융합학

2018년 5월, 곧 4학년을 앞두고 진로 고민이 많았을 때 우연히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모집요강과 사업 설명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지원서 작성과 면접을 통해 '나', '우리(조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 물음에 답하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 제가 속한 조직에서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과정이 모두 끝나 합격 소식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과정이 끝났을 때 해결하고 싶은 '나'에 대한 궁금증과 물음을 던져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 다양한 관심사, 전공을 가진 단원과 어떻게 잘 협업할 수 있을까?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과정에서 협업은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기왕 하는 협업이라면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지, 팀 내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팀 내에서 다른 팀원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그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듭해왔지만 고민한 만큼 실제 팀의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소셜 섹터 맵핑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존중, 믿음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둘, 한국YWCA연합회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처음 합격 소식을 듣고 인턴십 기관을 확정 받았을 때,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내가 한국YWCA연합회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첫 출근날부터 사라졌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저를 환대해 주셨고, 제가 종교가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정말 다양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더 다양한 문제를 고민해보면서 소셜 섹터의 전반을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인턴 기간 동안 그 많은 사회 문제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YWCA연합회에서의 따뜻함과 강렬한 실무 경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셋, 개발, IT를 업으로 삼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를 공부했고, 대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 UX/UI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익숙한 개발, IT 외의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 운동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일을 해봄으로써 다른 진로에 대한 경험, 고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개발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와 우리'를 위해 사회와 나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겠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한국YWCA연합회 지역운동국 Y-틴 위원회 (청소년팀)





나의 빅플랜은

기술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더 파급력을 가지고 빠르게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AFY를 통해 얻은 "AFY"

Adventure, Friends, Youth

유수정 크리스탈 | 연세대학교 지속개발협력학

1. Adventure: 새로운 도전

아산 프론티어 유스(아프유)를 경험하기 전에는 지속개발협력과에 재학 중이다 보니 국제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막연하게 국제적인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연구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적성에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에서 한 5개월 간의 인턴 경험은 평소 해 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적고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인턴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많은 양의 자료를 읽고 구조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인턴 근무 첫 날부터 한 달 정도에 거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를 읽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구조화시키는 과정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져 때론 좌절하기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화복지재단 교육체계 수립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과 관련한 보고서, 연구보고서를 비롯해 10개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글로 내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작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문 및 자료를 읽고 이를 재구성하여 내 기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흥미가 생기다 보니 처음에는 두려웠던 과장님 앞에서의 발표가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부 직원들은 현장 업무를 할 기회가 부족해 격주로 사회복지 및 조직문화와 관련된 정보지를 함께 공유하는데 이 정보지의 디자인 및 내용을 새로 재구성한 업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 Friends: 함께 걸어갈 파트너

7개월간의 아프유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아프유는 개인보다는 조별활동을 많이 하며 '함께의 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혼자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법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로 기대며, 함께 나누며" 달려왔기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성공적으로 아프유 여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유 동료들은 선의의 경쟁을 위한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면, 자극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본인만의 사고에 갇힐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별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때론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론 도와주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이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 할 동료를 얻은 것 같아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3. Youth: 앞으로 더 찬란핰 젊음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할 법한 도전도 서슴지 않고 '대학생이니까 해보자'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때론 좌절을 경험해도 '괜찮아! 또 해보면 되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이상적이다.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도전해보자!'는 태도로 7개월의 아프유 여정을 보냈습니다. 아프유의 여정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프유에서 배우고 얻은 소중한 경험과 동료는 앞으로도 함께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젊기에 도전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아프유에서 배운 경험을 녹여내 새롭게 그려나갈 앞으로의 저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나의 빅플랜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풀과 나무, 숲이 되듯,
나의 작은 결단과 실천이 잘 심어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꿈꿉니다.



기회와 도전

이다정 제이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

기회와 도전

뚜렷한 계획 없이 휴학 신청을 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아산 프론티어 유스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이제껏 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도전 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실천을 두려워하고 거대한 사회 변화에 무력감을 느꼈던 지난날과 달리, 아산 프론티어 유스와 함께라면 사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대외 활동 증빙 서류도 없이 적어 내려간 저의 지원서가 심사위원분들께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는 곳이었고, 그렇게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단원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이후 이어진 오리엔테이션과 2주간의 교육기간, 소셜 섹터 맵핑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통해 19명의 단원들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학 입학 이후, 어딘지 모르게 신선처럼 속세에 벗어나 살았던 삶이 거짓말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뚜렷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 부딪히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내가 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새로웠고 어딘지 모르게 후련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점

정말 소중히 여겼던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떠나 보내야 하는 이 순간이 아쉽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남은 후회는 다가올 도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새로 다가올 도전을 위해 이곳에서 배우고 느꼈던 교훈들을 천천히 반추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19명의 단원들과 보낸 모든 순간과 추억들이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성장할 수 있었고, 더 큰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인생의 또 다른 지점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서울시NPO지원센터 소통협력팀





나의 빅플랜은
새로운 변화에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믿습니다.



소셜 섹터 활동가로의 시작 그리고 여정

이동진 동동 | 연세대학교 행정학

[첫 시작]

군대를 전역하고 꿈꾸게 된 NGO 분야로의 진출이라는 꿈은 '착한 일'을 하고 싶다는 선하고도 막연한 의지와 더불어 비영리 섹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지한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 등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차세대 비영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라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멋진 문구에 끌려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섹터라고는 구호개발 NGO 밖에 모르는 저였고, 또 제가 과연 '인재'가 될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단원 모집 안내를 보고 바로 설명회부터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끝내자 마자 빗속을 뚫고 달려간 설명회장에서 설명을 듣는 중, 저는 커다란 벽을 맞닥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영리의 현장과 영역을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난생 처음 듣는 개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과 fit(적성)이 맞아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과연 이 쟁쟁한 사람들 가운데 선발되어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은 최종 면접까지 이어졌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면접관들은 스펙보다는 저라는 사람 자체와 저의 진정성을 봐주셨고, 그렇게 저는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단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움과 함께한 성장]

NGO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기 2주전부터 매일 들었던 소셜 섹터 맵핑(SSM) 교육은 저에게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비영리의 영역은 극히 일부'였다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다양한 사회 혁신의 사례들을 들으면서 비영리, 소셜 섹터에 매료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5명의 팀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고찰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던져보고, 논의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준 SSM 활동, 의료사회복지라는 처음 경험하는 영역에서의 한림화상재단 인턴십 경험 그리고 매일 같이 회의하면서 팀으로써 사회 혁신을 일으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SIP) 활동 모두 저에게는 처음이라 신선했고,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소셜 섹터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팀 활동을 진행하면서 협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든든한 파트너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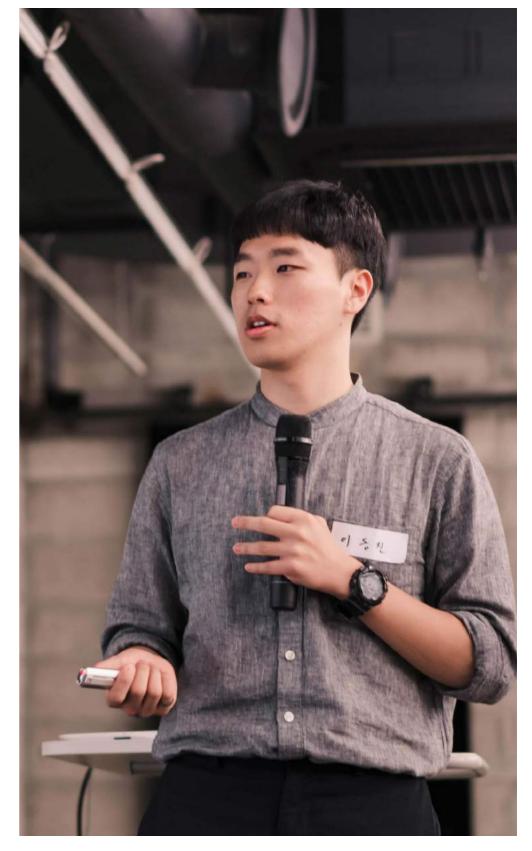
저는 앞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의 활동에서 경험하고 쌓은 다양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사회적인 임팩트, 사회가치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섹터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은 입단식 때 당차게 외쳤던 '사회적 혁신을 일으키는 체인지메이커'가 되겠다는 다짐을 이루는 첫 시작이자, 소셜 섹터 활동가로서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는 7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한림화상재단 모금사업팀





나의 빅플랜은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회구성원을 포용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소셜 섹터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108

00과 00 사이 어딘가

이하현 라온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에 지원하며 제가 세웠던 목표 두 가지는 '진짜 일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움 또는 어려움을 나의 방식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느냐를 떠나 아산 프론티어 유스 '이하현'으로 그리고 '라온'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십부터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 '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 사이 어딘가 있는 저를 끊임없이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채우면 좋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사회 혁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연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던져왔던 물음과 밟아온 길이 지금의 나와 어디쯤에서 만나는지 상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 어디쯤을 걷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과 함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회적 임팩트나 가치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하고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완벽하도록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와 방안을 고안하고 그에 따른 디테일을 맞추고 홍보, 정책 및 전략, 모금 등 여러 영역이 머리를 맞댄 끝에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과정 및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치열함과 최고를 만들어내려는 최선, 불확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 모든 노력이 모여 '평온하게 흘러가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는 뽐내기 위한 협업이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절실함을 엔진으로 불편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넘어서는 협업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치열함과 일상의 소중함 사이의 균형이 주는 힘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터디 기관 방문을 했을 당시,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움이 느껴졌던 기관 사무실 분위기와 담당자들의 표정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일상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짓누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일이 나의 고민과 문제의식과 이어질 때, 일상의 소중함이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발맞춰 나아갈 동료가 곁에 있을 때 힘들어도 박차고 가슴 뛰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25살과 26살 사이, 의지와 역량 사이, 상상과 현실 사이…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사이 어디'쯤 있는 제 여정을 계속 나아가게 해준 최고의 곁이였습니다.

우리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친구들, 매니저님 션, 제 2의 멤버 석, 미르를 비롯하여 인턴십 현장과 소셜 임팩트 교육과정에서 만난 모든 분들을 오래 오래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덕분에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아름다운가게 정책실 전략기획파트





나의 빅플랜은 문화적 소통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유 하면서, 비로소 발견한 것들

아프유니까 청춘이다

정은진 지니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 법학

아산 프론티어 유스(아프유)는 뜨거운 여름, 공원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몇 시간 동안 찍었던 그 열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7개월 간 용기 있게 도전하고, 마음껏 부딪힐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니'를 통해 발견한 정은진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잘 발견하던 저였지만, 정작 스스로는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몰랐습니다. 고맙게도 아프유에서 만난 동료들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끝까지 고민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아이디어를 시각화시키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팀 프로젝트와 인턴 경험을 하며 홍보물을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혼자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내가 낯설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위해 '나'에 집중하며 살고자 합니다.

'인턴십'을 통해 발견한 존중의 힘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 "정은진 선생님 만났지, 정말 좋았어요." 센터 이용인 분이 저에게 남긴 서툰 표현 한 마디가 오히려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분들의 직업훈련을 열심히 지지해서, 장애인분들의 큰 변화를 이루어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았고, 후에 깨달았습니다. '고착된 것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자!' 깨달음 끝에 제가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분들의 개인 성향을 파악하여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향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행복해하셨고, 저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용인분들께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보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표현에도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시는 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분 등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용인분들을 만나서 저도 정말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고민'을 통해 발견한 뿌듯함

'기상(7시)-출근(9시)-퇴근(18시)-팀 코치(20시)-팀 회의(23시)-과제(02시)-취침(03시)' 하루 동안 이 일정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진짜 가능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제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한 순간들이 모여 무언가 해냈을 때 뿌듯함은 엄청났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아픔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19명의 유스, 휘, 박경호 멘토님, 동안제일복지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준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동안제일복지센터 후원홍보팀





나의 빅플랜은 새로운 변화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의미있고, 즐거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팀원이었던 시간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팀 플레이어로서 성장했던 지난 8개월의 시간

조상원 피트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경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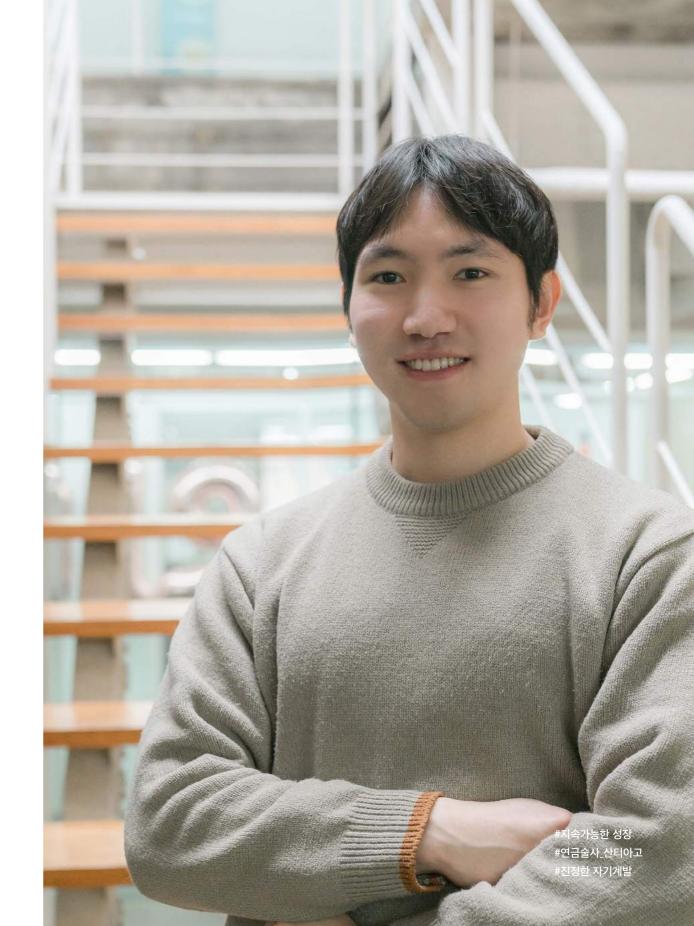
나에게 누군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몇 글자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팀플레이 활동의 연속'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소셜임팩트프로젝트까지 팀 단위로 활동을 했습니다. 팀 단위로 활동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게 편했던 나에게 계속 팀을 만들고 팀으로 활동한다는 게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에 팀을 이루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사로 모여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했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이런 활동들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름대로 대화 나누는 요령도 생겼고 마음도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임이나 팀 활동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팀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비단 아산 프론티어 유스 교육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일했던 사회연대은행에서도 팀으로 활동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가 속했던 마이크로크레딧팀은 팀원 개개인에게 각각의 사업을 주고 주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사업이 다르지만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공통 영역으로 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사업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령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에 지원한 소상공인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에 해당하지 않지만,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팀원끼리 얘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협업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 및 기업들과도 협업이 빈번했습니다. 제가 주임님을 도와 주로 지원했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우도 서울시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들, 신용보증재단, 우리은행, 멘토로 활동하는 경영 컨설턴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한 사업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다른 영역 간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팀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획과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인턴과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하는 여러 교육을 통해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배웠지만, 실제로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사회문제에 대해 사례발표하는 소셜 섹터 맵핑부터 사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실행하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이전에 대학교에서 했던 팀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했었지 생각할 정도로 진행하는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름 경청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이와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팀 플레이어로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나간다는 것이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걸 배웠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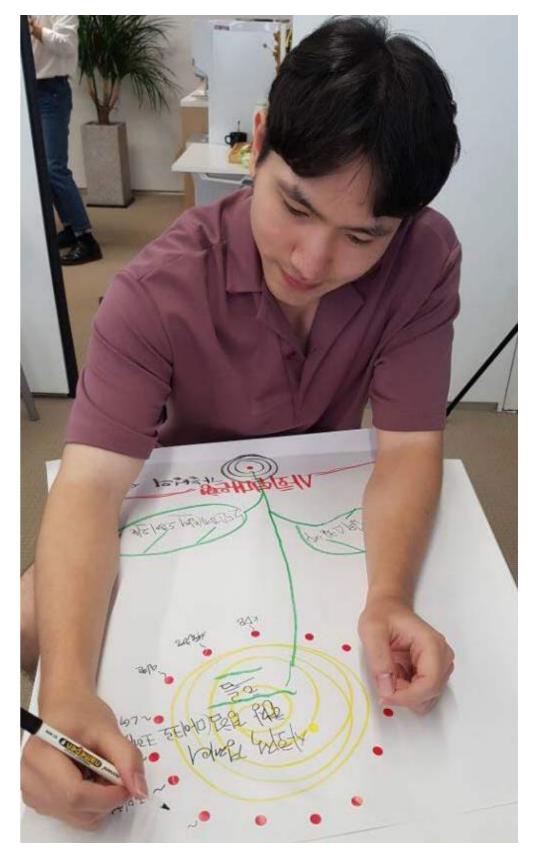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고 비영리 섹터의 사업과 트렌드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서 배웠던 팀플레이 방법을 잊지 않고 팀 플레이어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팀





나의 빅플랜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120

아산 프론티어 유스, 고맙습니다

조정은 우디 | 아주대학교 심리학, 인문사회데이터연계전공

내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고?

면접을 보고 당연히 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기대없이 마주한 합격 메일. 교육 첫 날, 유스 단원들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어떻게 합격이야?' 라는 생각에 물음표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이기에 조심스럽게,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1) 비영리에 대한 실재적 경험과 2)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간 활동을 통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추상적인 생각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비영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처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발 떨어져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 단원들을 포함해 이곳에서 만난 분들의 장점을 따라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저만의 것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셜 섹터 방문과 교육, 인턴십을 통해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얻으며 비영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섹터 맵핑(SSM)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SIP)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또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꿈과 같이 신기하고 행복했지만, 현실인 만큼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인 것이 꿈만 같지만, 이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 전과 후를 기준으로 제 스스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알던 NGO, NPO, CSR 등에 대한 개념을 직접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사)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조직과 개인의 협업은 물론 서로를 존중하고 설득하며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SSM과 SIP를 통해서는 제가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으며, 팀 활동에서는 어떻게 제 역량을 활용하고 협업할지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중 공모전(CSR)과 봉사 활동을 병행했는데,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더 배우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심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유의미했기에 '나'에 대해 알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디' 라는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할 만큼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준 아산 프론티어 유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료와 멘토분들 고맙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한국자원봉사문화 정책홍보국





저의 빅플랜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행복하되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순간

최윤석 윤스톤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3기 선배들의 수기집을 보았습니다. 사진과 글만으로도 그들의 행복함이 느껴졌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교육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또 수기집을 보고 다짐하고, 처음으로 정장을 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함께 면접 본 사람들은 저와 참 많이 달랐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왔던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만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전 정신과 패기를 우선순위로 여겼던 저에게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어찌 보면 아산 프론티어 유스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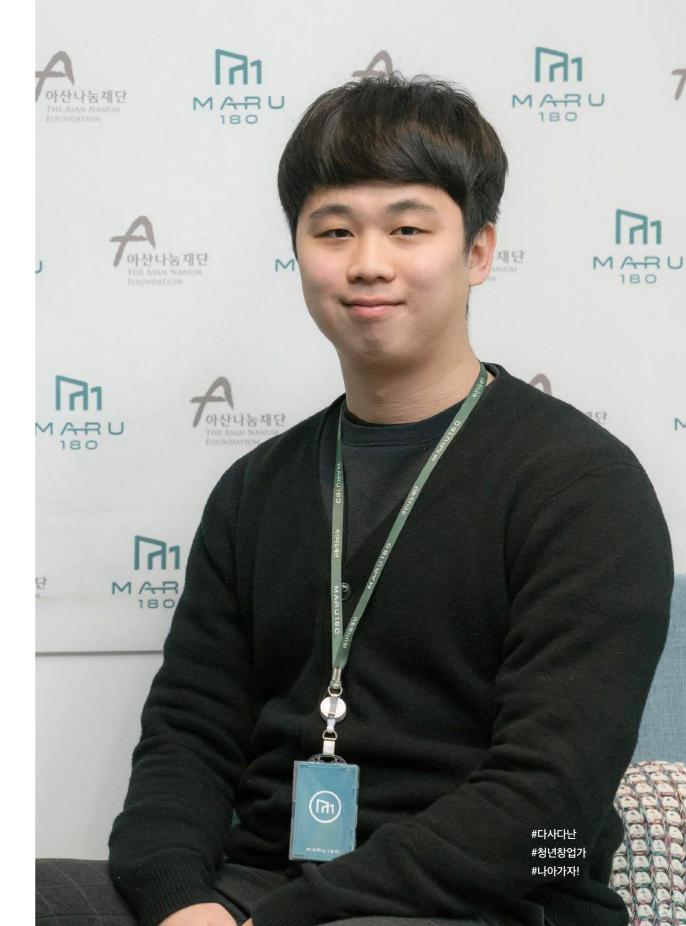
처음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뻐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동안 교육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 준비를 했습니다. 매 교육마다 각자 자기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활동가, 실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직접 기업에 방문해 그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볼 수 있는 순간 순간이었습니다.

소셜 섹터에 대해 이해가 점점 깊어 가던 중, 저의 Big Plan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Zipcar를 배웠던 강의였습니다. Zipcar는 사회의 한 특정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어 문제 해결이 우선된 뒤에 부수적으로 이윤창출이 이뤄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설립이 꿈이었던 저는 강의를 듣고, 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적은 비용, 큰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구성되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는지 깊은 고찰을 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은 바로 아름다운커피에서의 인턴십이었습니다. 처음 인턴으로 출근했을 때는,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생소하고 실무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업무를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 주시고 신뢰해주시는 팀장님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단순히 인턴이 아니라 아름다운커피 간사로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인도네시아 생산지인 페르마타가요 협동조합에 출장을 가는 소중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대부분이 푸른 산으로 뒤덮여 있고 이를 이루는 많은 부분의 나무가 커피나무로 심어져 있는 아름다운 마을의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찰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생각하면서도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만이 흘렀다는 것에 가끔 놀라곤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그 안에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긴 시간 동안의 일들을 정말 압축해서 경험해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소셜 섹터 교육, 인턴십,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SIP 프로젝트가 담긴 아산 프론티어 유스 책을 덮고, 나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멋진 새 책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아름다운커피 공감마케팅팀





나의 빅플랜은
세상을 이끄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적의 주문

최효은 피글렛 | 경기대학교 경제학

수기를 완성하기까지 몇 번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를 하는 7개월이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수정하고, 다시 행동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해야 해.', '우리 해낸다.'는 주문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7개월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지원자, 최효은입니다."

'지원자님과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음에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7개월 전에 받았던 탈락 메일의 첫 문장입니다. '이 일은 우열에 의한 선발이 아닙니다. 적합성 여부가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졌던 친절한 설명에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꿈꿔왔던 비영리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인턴을 찾아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기적처럼 저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아름다운가게 교육문화팀의 인턴이 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최효은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법 같은 일을 '행운'이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7개월 동안 스스로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나의 옷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좋은 사람들의 분에 넘치는 관심과 애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교육문화팀에서 5개월간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육에 관련하여 A부터 Z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하는 질문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합격시켜준 고마운 기관에 교육과 전혀 다른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잘하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일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의사표현을

소셜 섹터 맵핑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통해 팀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독특한 생각과 많은 질문을 하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는 저에게 창의적이고, 통찰력이 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의사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최효은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라는 수식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7개월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해야만 했지만, 결국에 저는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어도 저는 해내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19명의, 각자 반짝이는 빛을 내는 별 같은 그대들과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대들의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아름다운가게 교육문화팀



나의 빅플랜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작은 생각이 개인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걱정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자신 있으니까!

홍지연 홍 | 연세대학교 사회학, 언론홍보영상학

홍의 지원동기, 고민과 걱정

아산 프론티어 유스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고민"과 "걱정"에서였습니다. 4학년 진학을 앞두고, 졸업 후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며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감히 해결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들이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태 가져온 사회적 문제의식과 가치들을 졸업 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확신"과 "자신감"

결과적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은 이러한 제 고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리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혼자서만 앓을 필요 없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나" 스스로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소셜 섹터 맵핑과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 스터디를 통해 기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와우책문화예술센터에서의 인턴쉽은 한 프로젝트를 기획, 홍보, 운영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저만의 사회학적이고 문화 예술적인 스토리와 컨텐츠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실무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고민하고, 의지하며 응원할 수 있었던 많은 분의 존재는 제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확신"과 "자신감"이 되어줬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유스로 7개월을 동고동락한 20명의 유스 친구들, 성평등/페미니즘/청년주거에 대해 같이 고민했던 '써니'팀, 한국 청소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공공'팀, 우리의 도전과 열정을 반기며 응원해 주셨던 글로벌 스터디 및 국내 방문 기관 분들, 언제나 알찬 강연과 탐방을 제공해준 사회 분야 관계자분들, 5개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의미 있는 문화행사를 꾸려갔던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분들, 언제나 열정적으로 소통해 주셨던 알트랩 멘토 분들과 피터, 항상 감사한 션과 아산나눔재단 분들까지.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하면 끝도 없을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저의 여정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또 다른 시작들, 이번에는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또 다른 시작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태껏 묵혀 뒀던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단하기 전 고민과 걱정들이 모두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산 프론티어 유스가 선물해준 "확신"과 "자신감"이 제 큰 원동력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걱정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자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당신이 제 "확신"이자 "자신감" 입니다. 사랑합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와우책문화예술센터 기획홍보팀





나의 빅플랜은
문화예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가 공감,
소통, 변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물의 연속,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홍하늘 스카이 | 한양대학교 국제학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저의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했을 때 '나도 그 나이 땐 그런 일 하고 싶었어'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변 반응과 스스로 느껴지는 불확실함 때문에 우려 가득한 마음으로 아산 프론티어 유스(아프유)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입단식 때 비영리 분야를 톺아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프유 활동 중 저에게 주어진 일을 톺아보며 '사람', '용기', 그리고 '도전을 통한 성장'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 사람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을 위해 진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더 나은 사업을 위한 변화와 협업을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모습에 주어진 일은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영리 분야의 실무자분들과 가까이 지내본 것은 처음이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프유 단원들도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여러 대외활동에서 팀 프로젝트를 했지만 아프유 때만큼 조율이 많았던 적은 없습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지만, 각자의 성향이 다르므로 서로의 의견을 너무 많이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효율성은 떨어졌겠지만, 서로의 의견을 끊임없이 묻고 표현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고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결승선을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며 머리를 맞댄 팀원들은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 용기

글로벌 스터디 과정 중 해외기관에 컨택 이메일을 보내면서도, 그저 대학생인 저희의 요청을 받아줄지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요청에 선뜻 응해준 기관의 수가 목표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기관 분들께선 오히려 대학생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저희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스웨덴 반인신매매 대사님과 인터뷰 중에도 저희는 그저 대학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존재라며 저희의 잠재력을 칭찬해주셔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글로벌 스터디 과정의 경험은 작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생각보다 큰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 도전을 통한 성장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을 하며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도전을 했습니다. 이전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저와다른 생각은 별개의 생각이라고 칼같이 구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이제는 일단 발표에 도전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함께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과정에서 저희 이슈의 확산을 위해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와 연예인에게무작정 이메일을 보내며 팀원들과 피식 웃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희의 이메일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일단도전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도 도전하는 경험이 저에겐 선물로 다가왔고 경험을 통한 배움을 미래 제 삶에 잘 녹여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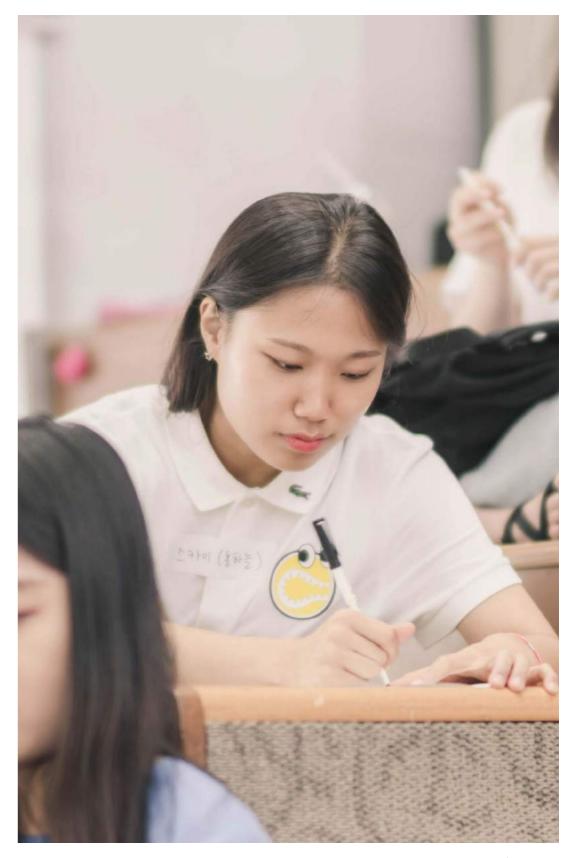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있지만, 아산 프론티어 유스 활동을 하면서 선물을 많이 받은 만큼 저도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합니다.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인턴십 기관 및 부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목적사업과





나의 빅플랜은
한 사람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맞춤형 솔루션을 적용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변화할 것이라 믿습니다.



140



아산프론티어 유스 4기에게 전하는 편지 주요 운영 & 교육 파트너

여름이 오면 기다려지는 만남. 뜨거운 여름날 나무가 자라듯 품었던 생각과 꿈이 한 뼘 더 자라 각자의 나이테를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나의 길을 단단하게 걸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이효정 연구원 얼터너티브랩



작든 크든. 흐릿하든 선명하든.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발자취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해할 수 있기를^^

안정권 연구원 얼터너티브랩



AFY 콜라포레이션 팀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다시금 경험하게 한 시간이었어요! AFY친구들과 우리 세대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경험과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AFY 여러분의 삶을 응원할게요. 파이팅^^

이은경 연구원 얼터너티브랩





밝고 건강한 에너지 뿜뿜 아프유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좋은 동료로 다시 만나요:-)

한성휘 연구원 얼터너티브랩



AFY를 통해 얻은 동기들과 날개를 맞대고 삶의 바다 위를 함께 활공하기를!

박정호 연구원 얼터너티브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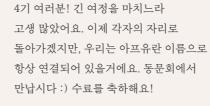
여러분이 제 과거 시절의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미래 중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상석 소장 공존플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곳곳에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아산 프론티어 유스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밝히는 빛 입니다. 앞으로도 세상 곳곳을 비춰줄 형형색색의 빛을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김영광 삼촌 어썸스쿨



김민석, 안재승 동문회장 아산 프론티어 유스



No Matter How Long The Winter, Spring Is Sure To Follow! 함께 봄을 만들어 갔던 시간들 잊지 못할 거에요. 앞으로도 따뜻한 봄을 함께 만나요 :) 천성우매니저 이산나눔재단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지식과 경험, 자신만의 시각 그리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모두 얻었길 바랍니다.

한정민 연구원 얼터너티브랩



아산프론티어 유스 4기에게 전하는 편지 협력기관 파트너



널널하지 않은 사수를 만나 고생했을 이다정님 앞으로는 순탄한 길 걷길 바라며!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박수연 매니저 서울시NPO지원센터



"앞으로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응원해. 풍성한 삶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Bless You!" 문새롬 사회복지사 한림화상재단



제시카, 아니 현영....함께 한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그대가 찾은 꿈을 향해 이제는 비상하는 일만 남았네요.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 다시 만나요!!!

손정화 국장 라파엘인터내셔널



피글렛만의 특별함을 쌓아가길! (라일락) 팀에서 전합니다_잘 될거야. 응원할게요~ 느긋하게, 예압!

백지은 간사 아름다운가게

"엘사와 함께 한 5개월, 행복했어요! 하고재비, 화이팅!"

최선희 팀장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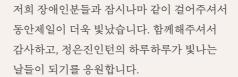


스카이의 멋진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꼭 찾아가길~~

신용식 관장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지원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이나믹한 재단 생활,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았어요. 앞으로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멋지게 컴백하길!

정지은 과장 인천문화재단



맹성재 교사 동안제일복지센터



상원인턴, 우리와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될거야. 앞으로의 길을 응원할게:-)

이효진 주임 사회연대은행



다운쌤! 인턴으로 와서 정직원처럼 일하기 있기없기? 고마웠구요! 늘 즐겁게 연대하고 살아가길 응원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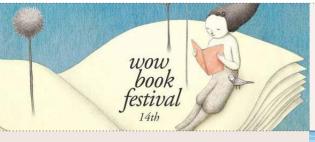


정은이가 뭘 두잉하던, 어디서 두잉하던 우리가 너의 미래를 응원한다! 심장아, 두잉두잉 뛰어라~! 날개를! 두잉두잉 펼쳐라~! -양재동언니들-

김민주 대리 한국자원봉사문화

천유란 간사 한국YWCA연합회

146



흥디(디자인까지 직접해서)라 불리던 우리 인턴! 책임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줬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누구보다 잘하리라 믿으며 응원해요. 고마웠어!

이현진 사무국장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성규씨, 지금 마음가짐 그대로라면 어떤 일이라도 잘 할 수 있을겁니다. 재단에서 보여줬던 밝은 모습 계속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원태 팀장 함께일하는재단

생명의 숲을 빛낸 쫑디~! 종원님과 함께 했던 2018년의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저희 활동가들은 참 고맙고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반짝반짝 자신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길 응원할께요! 화이팅~

원미현 팀장 생명의숲국민운동



아름다운청년, 최윤석! 응원합니다!

황희성 팀장 아름다운커피



Detail makes differentiation.

디테일이 차별화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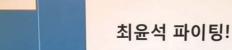
무심코 지나쳤던, 습관적으로 했던,

몰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살펴보세요.

성장과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당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김주영 책임연구원 태화복지재단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함께한 시간 그리울거에요. 전 직원이 늘 응원합니다! 앞으로 수민샘이 걷는 모든 걸음이 빛나기를!!

정영롱 과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8년 소연 씨와 같이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멋지게 해내리라 믿어요! 응원할게요!

김미경 부장 더라이트핸즈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 박준 지음,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중에서

임상엽 실장 세상을 품은 아이들



이하연 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도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하연님은 업무의 관계망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완결성을 일궈나가는 좋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연님의 능력과 노력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빛을 발할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함께해 주신 하연님, 인연을 만든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49

어정원 간사 아름다운가게

148



The Asan Nanum Foundation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10월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미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듭니다. www.asan-nanum.org



.....

What is Your Big Plan?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스토리북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아산나눔재단

디자인 얼스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

전화 02.741.8220

옵페이시 www.asan-nanum.org 이메일 youth@asan-nanum.org





